



PROFESSORS' COUNCIL
DANKOOK UNIVERSITY
단국대학교 교수회

교수회브리프

Vol.17 2021학년 제1호



교수회 브리프 17권 2021학년 제1호. 발행일 2021년 9월 1일

발행인-조한승, 인쇄-이기광, 편집-이지수, 제호·로고 디자인-정훈동, 행정-김가람·김현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Contents



표지사진:
퇴계기념중앙도서관

Welcome

‘교수회 출범, 소통을 통한 발전의 원동력’

조한승 교수, 교수회 회장,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4

Letter from President

‘가을 학기를 시작하며’

총장 김수복

5

Strategy Session

‘제1회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 결과보고’

이기광 교수, 교수회 총괄 사무국장,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6

Community News

2020년 2학기 교직원 정년퇴임식, 생애 첫 보직 발령 교원 축하 명패 전달

교수회 서신 1호, 2호 발송, 신규임용 교원 축하서신 및 선물전달, 총장님 신임교수회 임원진 예방

8

Community News

1차 교수회 통합위원회

제1차 교수회 통합운영위원회 주요 토의사항

9

Community News

교수회와 대학 간 복지협의체 1차 회의, 명예 이사장님 간담회, 죽전 산학협력단장님 간담회

교무처장님 간담회, 교수회·여교협 공동주최 온라인 특강 ‘檀교수의 슬기로운 자산관리 1시간 마스터’ 등

10

Community News

미래융합연구원 원장님 간담회, 총무 처장님 간담회

생애 첫 보직 발령 교원 축하 명패 전달, 교수회브리프 편집회의, 천안 교수회 사무실 이전 등

11

Contribution

‘정든 교정을 떠나며’

신현기 교수,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

12

Contribution

‘퇴임의 변’

윤성택 교수,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14

Contribution

‘靑出於藍을 위한 사람중심 교육의 실천’

노지현 교수,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16

Contribution

‘신임교수로서의 학교생활: 코로나 위기는 기회다’

신동윤 교수, 법학대학 법학과

18

Contribution

신임 교수로서의 감회, ‘신(新)’과 ‘함께’

백용훈 교수,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등학부

19

Professor Council Mutual Aid

상조활동

신임교원 축전 및 선물 전달

20

Contact Information

교수회 임원 및 운영위원

2021학년 교수회 사무국 연락처, 편집후기 및 기고 방법 안내

22

Welcome

교수회 출범, 소통을 통한 발전의 원동력



조한승 교수
교수회 회장,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존경하는 단국대 교수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수회브리프》를 통해 지면으로나마 인사 드리고 그동안의 교수회 활동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여러 교수님들을 모시고 교수회 출범을 기념하는 행사도 갖고 직접 뵙고 의견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교수회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이고 대학의 발전과 교수님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차분하게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위안을 삼습니다.

지난 학기 교수회는 죽전과 천안의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원격화상회의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리고 교수회-대학 간 제1회 복지협의체를 개최하여 장세원 교학부총장님과 본부 실처장님들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복지협의체 구성의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하게끔 지원해주신 학교당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 가운데 어떤 것은 신속하게 해결되었고, 일부는 개선책이 검토 중인 것도 있으며, 어떤 것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향후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개별 사항에 대해서는 브리프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들이 성장은 둘째 치고 당장의 생존도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갈라파고스 섬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주기 평가에서 우리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자율개선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대학도 불가피하게 변화를 모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불편함이 더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극복을 빌미로 누군가에게 불합리한 희생이 강요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자율'개선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설득과 이해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며, 불가피하게 양보가 요구되는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교수회가 노력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커피 서비스, 등반대회 등 교수회의 일부 사업과 행사가 이번 학기에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고 많은 참여와 조언 그리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신학기 건강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etter from President

가을 학기를 시작하며



총장 김수복

다시 가을 학기입니다. 여름 장마와 폭염을 견뎌낸 자연이 풍성하게 결실을 이루듯이, 이 가을에는 우리 교수님 한분 한분이 지나온 시간 속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모두를 다 덮고 새로운 기쁨을 얻는 날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봄 학기를 마치며 우리는 가을 무렵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 캠퍼스가 학생들의 활기로 다시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여름을 거치고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는 위기 상황에 대한 경계를 조금도 누그러뜨릴 수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교수님들은 교육과 연구, 학생 지도를 빈틈없이 해나가시며 일상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노력을 함께 해왔습니다. 우리 대학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학사를 안정되게 운영하고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교수님들의 노고가 이루어낸 결실입니다. 한마음이 되어 제자 사랑, 학교 사랑의 뜻을 보듬어 주신 교수님들께 큰 감사와 갈채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근년에 들어 더욱 악화되어 가는 고등교육 환경에 겹쳐 코로나 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대학 캠퍼스를 짓눌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대학이 온갖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 나왔듯이, 오늘의 우리도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는 단국호의 노를 결코 놓지 않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봅니다.

지난 학기에는 뉴노멀 시대의 대학 교육을 앞서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혁신적인 학사 및 행정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형 국책과제인 디지털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에서 우리 대학이 바이오헬스 분야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 의약학분야(MRC) 선정으로 오랜 숙원을 풀기도 했습니다. 이 모두는 교수님들 한분 한분의 열정과 헌신이 가능케 한 성과입니다.

1989년에 창립된 교수협의회가 30여년의 연륜을 거쳐 ‘교수회’로 명칭과 위상을 바뀌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교수회는 교수님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창구로서, 그리고 대학 당국과 교수님들과의 사이를 이어주는 가교로서 우리 대학 발전의 한 축이 되어 왔습니다.

안팎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교수회에 결집된 교수님들의 의지와 실천은 더욱 의미있고 중요하며, 대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발전해 나가는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수회가 더욱 빛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교수회와 더불어, 교수님들과 함께 강건하게 나아가는 가을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trategy Session

제1회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 결과보고



이기광 교수
교수회 총괄 사무국장,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올해 교수회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대학본부와 교수회간 정기적 소통 채널의 일환으로 교수회-대학 간 정기 복지협의체를 매학기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지난 2021년 4월 30일 대학본부의 교학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실장, 총무인사처장 참석하에 제1회 복지협의체를 개최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크게 연구업적평가, 연구장려금 및 교원복지 관련하여 평소 교수님들의 의견들과 올해 1학기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들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연구업적평가 (담당부처: 교무처)와 관련해서는 주로 연구업적부담 경감에 대한 다양한 방식들(예: 정년보장 교수 승급 평가기간 연장, 교육과 봉사 및 외부과제수주 등 모든 업적을 통합하는 마일리지제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이들 중 전공교재 및 전문번역을 저서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여 조만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학연구비 및 연구장려금 (담당부처: 미래융합연구원) 부분에서는 교원 증가에 따라 부족하게 된 연구비 예산을 전년 대비 10%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외부과제 수주에 의한 연구실적의 연구장려금 인정금액을 현행 50%에서 100% 부여하는 방안과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도 자연공학계열과 마찬가지로 연구장려금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차기 연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의하고 설득하는 대학본부와의
원활한 소통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업적평가

건의사항 및 담당부처 답변	진행상황
2015년 이후 임용교수 업적평가 방식 다각화	X
✓ 시행 초기 단계인 관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	
정년보장 교수 승급 평가기간 연장 및 이중징계 해소	X
정년보장 교수 승급 평가기간 연장 검토 예정	
교수업적 통합 마일리지제(연구, 교육, 봉사, 과제 수주 등 통합 반영)	X
검토결과 평가기준의 구조, 관리시스템개발 등 문제로 실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 중	
저서 집필 실적 확대 반영	○
학술서 외에 전공교재, 전문번역도 인정 예정	
교원인사자가진단 시뮬레이션에 질적 평가 반영	△
소수의 질적평가 대상자에게도 피해 없도록 검토 중	

마지막으로 교원복지와 관련해서도 화장실 시설 개선이나 퇴직 예정 교직원에 대한 퇴직준비 안내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에 의해 예산 절감되는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액수만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의 증액도 적극 검토를 건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존 건의사항의 지속적인 F/U와 함께 교수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 건의사항들을 발굴하여 차기 복지협의체를 통해 건의하고 설득하는 대학본부와의 원활한 소통 프로세스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연구비 및 연구장려금

건의사항 및 담당부처 답변	진행상황
교원증감과 연구실적 변동 예상한 연구비 예산의 선제 책정	○
✓ 교원총원에 맞춰 전년 대비 10% 증액 편성	
외부과제에 의한 연구실적의 연구장려금 100% 인정	△
차기 연구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 상정 예정	
대학연구비 및 연구장려금 제도 개편 (이중수혜 문제 해소, 연구장려금 중심으로 개편)	△
차기 연구심의위원회에 관련 안건 상정 예정	

교원복지

건의사항 및 담당부처 답변	진행상황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폐지에 상응하는 대학 학자금 지원 증액 (기존 예산 반영시 학기당 60만원 증액 가능)	△
✓ 2020년 해당 금액을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추가 증액은 기획실과 협의하여 검토할 예정	
원격 화상 회의/강의 시설 증설	△
✓ 필요성 검토 후 증설 예정	
노후 냉난방 시설 신속한 보수 및 교체	○
✓ - 시행	
화장실 시설 개선 (여성 화장실의 휴지, 난방 등)	△
✓ 여성 화장실 난방 관련 기술적 문제 검토 중	
죽전 식당 운영 재개 및 교직원 식사구역 명확화	○
✓ 현재 해당관 학생식당과 통합운영 중	
퇴직 예정 교직원에 대한 퇴직준비 안내 서비스	△
홈페이지에 퇴직자 안내 코너 별도 운영 예정	

표 설명:

진행상황 표기: 완료-○, 진행중-△, 미해결-X
 담당부처: 연구업적평가 - 교무처,
 대학연구비 및 연구장려금 - 미래융합연구원,
 교원복지 - 총무인사처

Community News

2021년 1학기 교수회 활동

2020학년도 2학기 교직원 정년퇴임식

2021년 2월 25일, 법정관 505호에서 2020학년도 2학기 교직원 정년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교수회에서는 정년퇴임 교원에게 축하 화환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사진 오른쪽)



교수회 서신 1호, 2호 발송

2021년 3월 3일 교수회에서는 교수회 출범을 알리는 교수회 서신 1호를, 이어 5월 3일 스승의 날 선물 관련 내용을 담은 교수회 서신 2호를 전체 전임 교원 및 교수회 회원을 대상으로 발송했습니다.

보직 발령 교원 축하 명패 전달

교수회에서는 2021년 3월 5일 박성순 대외 협력처장님께 '생애 첫 보직 발령 교원 축하 명패'를(사진 아래 왼쪽) 전달하고, 이어 3월 8일 박승환 천안부총장님께 취임 축하 화분을 전달했습니다(사진 아래 오른쪽).



신규임용 교원 축하서신 및 선물전달

2021년 3월 15일에는 죽전, 천안 캠퍼스 총 28명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오찬 취소에 대한 위로와 신규 임용에 대한 축하의 뜻을 담아 서신과 선물 (접이식 우산)을 전달했습니다.(사진 왼쪽)



신임교수회 임원진 총장님 예방

2021년 3월 19일에는 김수복 총장님과 신임교수회 임원진이 자리를 마련하고 교수회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사진 왼쪽)

1차 교수회 통합운영위원회

2021년 4월 1일에는 죽전, 천안 캠퍼스에서 제1차 교수회 통합운영위원회를 코로나 방역조치 관계로 이원 화상 회의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제1차 교수회 통합운영회, 죽전 캠퍼스 인문관 207호 (화상회의실·사진 위)

제1차 교수회 통합운영회, 천안 캠퍼스 인문관 324호 (화상회의실·사진 아래)



제1차 교수회 통합운영위원회 주요 토의사항

- (1) 전기 16기 교협 업적 및 성과 소개 (계승)
- (2) 교수회 출범 선포
 - 가) 분과 위원장 선출
 - 나) 부회장 및 총괄 사무국장 임명
 - 다) 지회 사무국장 선임
- (3) 2021학년도 교수회 활동계획
- (4) 2021학년도 교수회 예산안 심의
- (5) 교수회-대학당국 간 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 (6) 분과별 신 안건 및 건의사항 수렴

2021년 4월 1일 제1차 교수회 통합운영위원회 죽전 캠퍼스 및 천안 캠퍼스

제1차 통합위원회에서는 2021 학년도 교수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고 계획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먼저 전기 교수협위원회의 업적과 성과를 돌아보고, 이번 학년도 교수회 출범을 맞아 분과 위원장, 부회장 및 사무국장, 지회 사무국장을 정했습니다. 2021학년도 교수회 활동을 계획하고 예산안 심의를 마쳤습니다. 교수회-대학당국 간 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분과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교수회- 대학간 복지협의체 1차 회의

2021년 4월 30일에는 '교수회와 대학 간 복지협의체 1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교수회에서는 조한승 회장, 이기광 총괄 사무국장, 박영준 부회장, 김정윤 감사가 참석하였고, 대학측에서는 장세원 부총장, 강정원 교무처장, 유정석 기획실장, 정우성 총무인사처장이 자리해주셨습니다. (사진 왼쪽. 왼쪽부터 정우성 총무인사처장, 강정원 교무처장, 유정석 기획실장, 장세원 부총장, 조한승 회장, 박영준 부회장, 이기광 총괄 사무국장, 김정윤 감사)

명예이사장님 간담회

2021년 5월 10일 장충식 명예이사장님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조한승 회장, 이기광 총괄 사무국장, 정치영 부회장, 강동승 감사가 참석했습니다. (사진 오른쪽)

죽전 산학협력단장님과 간담회

2021년 5월 10일에는 김호동 죽전 산학단장님과 조한승 회장, 이기광 총괄 사무국장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스승의 날 기념 교수회 기념품 배포



2021년 5월 14일에는 죽전, 천안 캠퍼스에서 '스승의 날' 기념 교수회 기념품(무소음 벽걸이 시계)을 배포 배포했습니다. (사진 왼쪽)



천안 교무처장님 간담회

2021년 6월 8일에는 허승욱 천안 교무처장님과 조한승 회장 및 천안캠퍼스 교수회 임원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교무처장님 간담회

2021년 6월 16일에는 강정원 교무처장님과 조한승 회장, 이기광 총괄 사무국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획실장님 간담회

2021년 6월 17일에는 유정석 기획실장님과 조한승 회장, 이기광 총괄 사무국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교수회·여교협 공동주최 온라인 특강

'檀교수의 슬기로운 자산관리 1시간 마스터'

2021년 6월 18일에는 교수회에서는 여교수협회 공동으로 다양한 자산관리 콘텐츠를 주제로 zoom 활용 온라인 강의를 주최했습니다. (사진 왼쪽)

檀교수의 슬기로운 자산관리 1시간 마스터

다양한 자산관리 콘텐츠를 주제로 ZOOM 활용 온라인 강의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오후 3:00 ~ 4:00
강사	박중혁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부부장)
장소	비대면 화상 강의 접속방법 (ZOOM ID : 898 061 4743 / PW : woori2021)
공동주최	여교수협의회, 단국대학교 교수회

■ 강의 내용 및 시간

- 1강 저성장시대 효과적인 자산관리 필요성
- 2강 안정적인 현금흐름 및 자산관리 매커니즘 변화 (10분)
- 3강 자산관리 상담사례 소개 (부동산 취득, 자녀유예) (10분)
- 4강 금융자산 자산배분 및 투자 포트폴리오 소개 (10분)
- 5강 현금자산 활용 중립소득세 절세방법 (10분)
- 6강 참가자 온라인 질의응답 (Q&A) (10분)

교수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단국대 교수회 사무국 031-8009-2894 (죽전)

교수회브리프 편집위원장 위촉

2021년 6월 22일 교수회는 이지수 교수를 <교수회브리프> 편집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교수회 사무국에서 <교수회브리프> 발간을 위한 1차 편집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래융합연구원 원장님 간담회

2021년 6월24일에는 피재호 미래융합연구원장님과 조한승 회장, 이기광 총괄 사무국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총무인사처장님 간담회

2021년 6월 30일에는 정우성 총무인사처장님과 조한승 회장, 이기광 총괄 사무국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생애 첫 보직 발령 교원 축하 명패 전달

생애 첫 보직 발령 교원에 대한 축하 명패 전달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2021년 7월 14일에는 법학대학 이종구 학장님(사진 아래 왼쪽), 7월 15일에는 생명공학대학 김인호 학장님(사진 아래 오른쪽)께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교수회브리프 2차, 3차 편집회의

<교수회 브리프> 편집에 대한 논의가 2021년 8월 11일과 2021년 8월 18일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수회 로고, <교수회 브리프> 로고의 활용 방법, 내용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진 왼쪽)

학사구조개편위원회 위원 추천

우리대학이 3주기 대학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학사개편 과정의 소통 증진을 위해 9월에 새로 개편되는 학사구조개편위원회 위원 가운데 네 분의 위원을 교수회가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천안 교수회 사무실 이전

천안 교수회 사무실이 이전합니다. 2학기부터 천안 캠퍼스 인문과학관 244호에서 교수님들과 만나 뵙겠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활기차게 발전하는 교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Contribution

정든 교정을 떠나며



신현기 교수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

1964년에 개봉한 영화 <떠날 때는 말없이>의 동명 주제가인 '떠날 때는 말없이'는 당시 26세였던 가수 현미씨가 부른 가요이다. 그 노래의 1절 마지막 부분은 '두고두고 못다 한 말 가슴에 새기면서 떠날 때는 말없이, 말없이 가오리다'로 맺는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작년과 올해의 퇴임자는 더욱더 말없이 떠났고, 또 떠나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교수회로부터 떠나는 마당에 몇 마디하고 떠나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거절을 못한 채 대학생활의 이러저러한 잡상(雜想)을 남기게 되었다.

정년퇴임(停年退任)의 사전적 의미는 연수(年數)를 정한 후, 그 해에 다다르면 그 직에서 물러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년이란 앞 단어보다는 '퇴임'이라는 뒷단어가 못내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이보다 덜 서운한 표현은 없을까 하여 영어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찾아보았더니 'retire'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는 프랑스어 '끌다(tirer)'에서 나왔다고 한다. 즉, '뒤로'를 뜻하는 접두사 re와 결합해 '스스로를 북적북적한 곳에서 조용한 곳으로 끌어내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스스로 조용한 곳으로 물러난다는 은퇴(隱退)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퇴임보다 덜 서운하였다.

물론 이러한 너스레는 곧 물러남에 대한 아쉬움의 반증일 것이다.

나는 2007년 우리대학 한남동 캠퍼스에서 죽전캠퍼스로 이전하던 바로 그 시기에 교무처장이란 보직을 맡은 바 있다. 한 가정의 살림살이를 옮기는 것도 매우 번거로운 일인데 그 거대한 종합대학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전을 할 것이며, 이전과 동시에 바로 2학기 수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까를 두고 밤잠을 설쳤던 때가 엇그제 같았는데 정말이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단국 구성원들의 헌신적인 협조로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최초로 대학 전체가 수도권으로 이전하고 곧바로 2학기 학사운영을 이루어 낼 수 있었기에 새삼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한편, 대학 발전의 한 축을 차지하는 우수한 교수요원을 초빙하기 위해 학과, 단과대학, 그리고 대학 본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대거 우리 대학에 모시게 된 것도 커다란 보람이자,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다. 임용된 신입교수들과 일주일 간 거의 하루 종일 함께 하며 대학 행정연수와 교수자와 연구자의 역할 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일도 새삼스레 떠오른다. 내가 곧 정년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당시에 임용된 교수로부터 그 때 처장인 내가 교수들과 나누었던 내용을 전해 듣고 다시 한 번 그 때를 추억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인즉 이러하였다. “교수님들! 임용 후 5년 동안 학생들에게 죄 짓지 마세요”라는 말을 내가 했단다. 학부와 대학원, 그리고 선진 외국에서의 유학생활동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초임 교수자의 드높은 열정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독려하려는 교수자의 의도가 자칫 학생들에게는 자신들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연사로 비취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오해로 비취질 수 있기에 학습자의 심리상태를 고려한 동기화의 필요성이 있음을 예들려 표현한 것이었을 테다.

요즈음 세대는 외동이 세대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잔소리보다는 격려를 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인 우리는 잔소리 세대이다. 잔소리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성세대가 ‘옳은 말’에 방점을 찍을 때 지금의 세대는 ‘기분 나쁨’에 방점을 찍는다. 그래서 잔소리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여야 한다” 그것이 격려에 대한 조작적 정의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단국 구성원은 누군가의 약점을 들춰내기보다는 강점을 격려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입학 경쟁력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흔히,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의 위기가 온다고 했지만 사실은 동시 다발적으로 대학의 위기가 올 수 있다. 단국 구성원 모두가 이 문제를 직면한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슬기로운 대안적 활동을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교수생활 마지막 세 학기를 학생들과 비대면으로 보내게 되었다. 이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물론 학생들도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하여 그들은 절대다수가 대면환경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었다. 그러나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그들의 절대다수는 비대면 강의를 선호하였다. 자연스럽게 코로나 19 이전의 대학으로 되돌리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러한 현상에 대학은 어떻게 대처하며 그들의 학력과 학풍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제 대학은 University에서 Multiversity로, 나아가 Transversity로 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 해결의 지혜는 교수-학생-직원-동문 사회의 유기적 협조체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시인 윤제림은 행복한 사람은 세월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가는 시간은 아쉽지만 떠나보내고 오는 시간은 가슴 설레며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다. 행복한 사람은 사는 곳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단국대학교가 자신의 고향은 아니지만 재학생과 동문의 고향이라는 생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행복했으면 한다. 행복한 사람은 사람들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어디 있느냐며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

모두 “사이 간(間)”자가 붙은 시간(時間), 공간(空間), 인간(人間) 이 세 단어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다. 세상에 갑자기 생긴 것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 홀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사람 사람은 혼자선 살 수 없다고 힘주어 말하는 사람, 손잡을 수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음을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다.

나는 행복한 사람으로 퇴임하게 되었기에 단국 구성원 모두에게 감사한다. 부디 구성원 모두도 시간, 공간, 인간과의 사이가 좋은 사람으로서 명실상부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한다.

Contribution

퇴임의 변



윤성탁 교수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학부

불과 100여년 사이의 일이다.

구한말시대 주변 강국의 끊임없는 침탈과 이어진 일제 식민지배 그리고 한국전쟁 등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차 대전 종료이후 해방된 그 어느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짧은 기간에 오늘의 민주주의, 오늘의 풍요로움을 일구어 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상위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맹모삼천의 교육열이 오늘의 한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기도 할 것이다.

대학의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학의 '존재의 이유'와 '미래 지향적 가치관'과 '글로벌한 전문인 양성'에 대해 진지하고도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앞으로 년 출산 수는 30만 명 이하가 될 것이고, 대학 입시생이 감소하여 이미 지역 전문대학들이 어려워졌고, 다음은 지방 4년대가 필요 충분한 학생 수를 채우지 못 할 것이다. 인구학적으로 보아도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대학 구조 개혁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질적 변화로의 개혁이 아닐까 싶다.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얼마나 많은 인재를 배출하느냐가 대학 및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근본적 철학은 기존의 학문구획을 뛰어 넘는 초학제적 융합이 논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혁기에 대학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 많은 것이 급격히 변해가는 풍토 속에서 지금의 흐름을 근거로 미래 풍향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학과라는 칸막이를 가능한 한 낮추고, 문제해결 형 인재 양성 쪽 학습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퇴임 즈음 노교수의 노파심으로 인사가 너무 무거워졌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몰은 학생들을 강의실로 모이지 못하게 했고, 그 사태 속에서 학생과 학부모 못지않게 나도 당혹스러웠다. 만남과 관계가 그리웠고 험한 강의실과 조용한 캠퍼스를 보면 마음이 쓰렸다. 왠지 젊을 생기로 가득했던 식당가와 부속 건물들도 침묵이 채우고 있다.

결국 비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비 대면으로 작별인사를 하게 됐다. 아쉽기도 하지만 어쩌면 복잡한 표정관리를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있긴 하다. 교수직을 마감하고 자신에게 새로운 출발과 비전을 제시해야하는 설렘과 부담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1990년 봄 학기에 첫 강의를 시작한 게 엇그제 같은데, 31년 6개월... 지금 생각하니, 내게는 바빠 다녀온 자신의 심부름 같은 삶의 공간이었다.

우리의 인생, 삶이 누구에게나 그러하듯이 나도 어렵사리 교수가 되어서, 긴 세월동안 나를 충실하고자 노력했다는 마음 한편에는 “좀 더 후덕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피며 생활할 것을”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곳 캠퍼스에서 반평생을 보냈고 내 인생에서 열정을 쏟은 최고의 시간이었으나, 이 여행은 끝났고, 새로운 시간의 주기를 시작해야 할 때에 이른 것이다. 저 멀리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나 하산해야 한다. 하산 길을 내려다보니 아직 산허리 돌아 남아있는 오솔길도 보이니, 잔잔한 호수와 함께 시원한 선들바람도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직업은 자아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행처 같은 것이다. 대학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함은 물론 각자의 자아 성취를 이루는 토대가 아닐까 생각한다. 사회변화의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겪어보지 않은 세상이 밀려오고 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듯 편의적 낙관론을 주의하시길 바란다. 16~17세기 네델란드에 부를 가져다 준 청어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북해에서 잡은 죽기 쉬운 청어를 런던까지 산채로 수송하려고 수조에 바다 메기 한 마리를 넣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더라는 것이다. 가끔은 팔꿈치에 건전한 긴장의 윤활유를 바르는 것도 건강함을 위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본다.

모쪼록 당신들이 단국대학교의 힘을 생산하는 발전소가 되길 바라고, 새로운 보람과 성취로 가득하길 바란다.

나도 이제 세상의 현장으로부터 조금씩은 멀어져 볼까 한다. 단국대학교에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 드린다.

내 자신에게 주는 다짐과, 날마다 새로운 경이의 세상에게 드리는 겸허의 의미를 담아 시 한편 올리며 퇴임의 변를 마치고자 한다.

의 자

조 병 화

지금 어드메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웁니다.
그 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 드리지요

지금 어드메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웁니다.
그 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 드리겠어요.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듯이

지금 어드메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웁니다.
그 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 드리겠습니다.

Contribution

靑出於藍을 위한 사람중심 교육의 실천



노지현 교수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2021년
제40회 스승의 날
교육부장관 표창
수상’

교수의 역할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교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2011년 단국대학과 인연을 맺고 어느덧 10년에 접어드는 지금까지 온전히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고민했지 싶다. 그 세월에서 수많은 일이 있었고, 그만큼 성숙했고, 또 그 이상의 부족함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여전히 채워야 할 부분이 넘쳐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자는 다짐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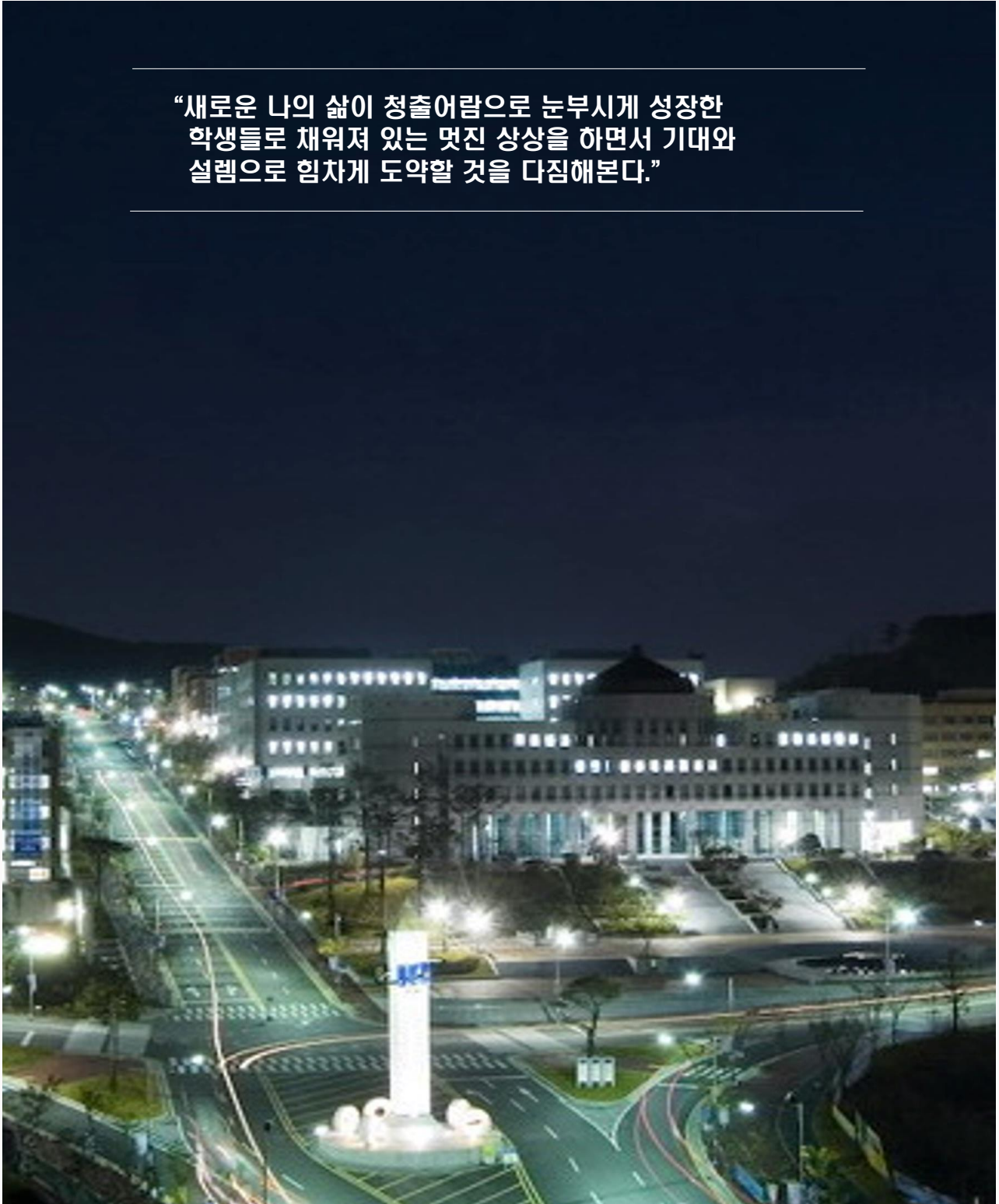
단국대학에 부임하기 전에는 평범했으나, 열심히 실험하는 연구자/과학도로서 연구에 몰입했고 조금이라도 사회에, 인류에 기여할 연구를 하는 사람이면 했다. 기왕이면 나의 노력이 내 개인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발전으로 확장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내가 사회로부터 받은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혜택만큼이나 사회에 환원될 수 있으면 했다. 그러한 바람은 연구적 노력에서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연구자로서뿐만 아니라 교육자의 역할로 확장되는 순간 실현할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 한다.

교수는 사회에 공헌할 연구를 하는 연구자여야 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후학양성에 힘써야 하는 교육자여야 한다. 청출어람을 실현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난날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하루하루를 채웠던 시간에서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라면 단언컨대, 연구와 교육, 일을 위해 함께 했던 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추억이다. 일보다는 사람을 들여다보았고, 사람을 통해 일을 해결했으며, 결과도 사람과 함께 했다. 그들 각자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개성에 맞추어 함께 했다. 내 삶은 사람이 빠지면 ‘無’인 것이다.

어느 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이 들렸다. 제40회 스승의 날 교육부장관 표창!이라니!! 당치도 않다 생각했다. 너무도 놀라운 학생들이 많다. 그들은 항상 겸손하고 아직 발하지 않은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의 능력치를 최대치로 이끌고 응원하고 그들의 꿈을 이루는데, 나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했다. ‘스승의 날 유공교원’ 포상은 기관추천과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의 개별추천으로 개별추천자는 교육부에서 별도 취합 후 시도교육청 등 추천기관에 통보 후 기관 추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적심사 후 교육부 추천으로 이루어진다. 나의 경우는 후자이다. 국내외 소외계층 교육봉사의 놀라운 활동 스펙을 가진 인재상 수상 학생(과학교육과 이현아)이 추천하였고, 대학의 안내로 공적 조서를 제출했다. 공적 내용을 써가는 과정에서도 그 모든 스펙의 결과가 나와 세월을 함께 했던 이들의 협력과 지원에 의한 것을 느꼈고, 추천부터 여러 공적 내용과 관련한 모든 분께 감사한 생각뿐이었다.

이 무게감 있는 표창은 더욱더 사람 중심의 교육자/연구자로서의 실천을 강조하고 또 응원하는 상인 듯하여 개인적으로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새로운 나의 삶이 청출어람으로 눈부시게 성장한 학생들로 채워져 있는 멋진 상상을 하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을 다짐해 본다.

“새로운 나의 삶이 청춘어람으로 눈부시게 성장한
학생들로 채워져 있는 멋진 상상을 하면서 기대와
설렘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을 다짐해본다.”



Contribution

신임교수로서의 학교생활: 코로나 위기는 기회다



신동윤 교수
법학대학 법학과

2021년 첫 학기, 설레임과 긴장감으로 첫 발을 디딘 신임교수로의 학교생활은 무척이나 바쁘고 정신없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대학교에 처음 입학한 설레는 신입생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과 대면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 모두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에서 수업 동영상 제작하고 업로드 하는 과정은 번거롭고 손이 많이 드는 일이었지만, 학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과 업로드 시스템은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학장님과 학과장님 이하 교수님들께서 신임교수에게 불편함과 애로사항이 없는지 살펴봐주시고, 독려해주신 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선 코로나 시대에 신임교수로서 느낄 수 있었던 학교생활과 비전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로 인한 체계적인 비대면 수업시스템 구축은 단국대학교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국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제작 시스템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다 할 것입니다. 결국, 단국대학교는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체계적인 비대면 수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원거리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원거리 수업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겁니다.

둘째, 줌(Zoom)이나 기타 다른 원거리 대화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학과에서는 학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교수님들이 학기 중에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원거리 대화 시스템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과 불편함 그리고 원하는 바를 듣고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거리 대화 시스템을 통한 소통이 학생들로 하여금 미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재로 만들것입니다.

코로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비대면 수업과 소통의 불편함을 주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으나, 다르게 보면 이러한 위기를 체계적인 비대면 수업시스템 구축과 장소와 관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원거리 대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위기극복의 기회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Contribution

신임 교수로서의 감회, ‘신[新]’과 ‘함께’

2021년 3월부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교수로 임용되었다. ‘신’설된 베트남학전공의 ‘신’임 교수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20명의 ‘신’입생들과 의미 있는 첫 학기를 보냈다. 우선 새로운 전공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생하시고 애쓰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임용 후 한 학기 동안 새로울 ‘신(新)’의 글자가 가진 함축적 의미를 고스란히 느꼈다. 새로움은 언제나 호기심과 기대감을 자극하고 신선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열정을 뽐게 만든다. 익숙하지 않은 강의와 업무를 열정만 가지고 헤매면서 하나씩 하다 보니 한 학기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임용 축하와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새로운 학교에서의 적응과 새로 만들어진 전공 운영, 목표, 비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더욱 많이 가졌다.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베트남학전공을 다른 오랜 역사를 가진 전공 학과처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토대가 없는 집은 사람이 없는 그림자와 같다(Nhà không móng như bóng không người)”라는 베트남 속담이 있다. 기초를 잘 다져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돌이켜보니 새로움의 열정을 가득 품고 보낸 한 학기의 이면에는 편안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었다. 외국어대학 학장님, 학부장님 그리고 선배 교수님들의 따스함 덕분이다. 나는 외국어와 해외지역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특유의 매력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따스한 친밀감이다. 각기 다른 전공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혹은 국가)의 언어에 대한 특수성을 존중하고 그 문화를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함께’하는 가치를 본받고 되새기게 된다.

학부 전공을 베트남어로 시작해서 석사 과정을 지역학으로 그리고 박사 과정을 사회학으로 공부하기까지 그동안의 시간은 우공이산(愚公移山)을 실천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어를 포함한 인문사회 분야는 더욱 어렵다. 새로운 혁신과 위기 모색을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 베트남어 혹은 베트남학 관련 전공은 국내에서 희소성을 지닌다. 사립 종합대학교에 속해 있는 외국어대학, 바이오헬스 분야의 강점을 지닌 우리 대학에 베트남학전공이 잘 스며들어 배태된다면 베트남어학만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특징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움이 너무 지나치면 거부감과 반발심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더 큰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조화가 중요하다. ‘신(新)’과 ‘함께’, ‘새로운’ 베트남학전공에 대한 기대를 하나씩 충족시켜나감과 동시에 단국대학교 내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하는 조화를 추구하여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백용훈 교수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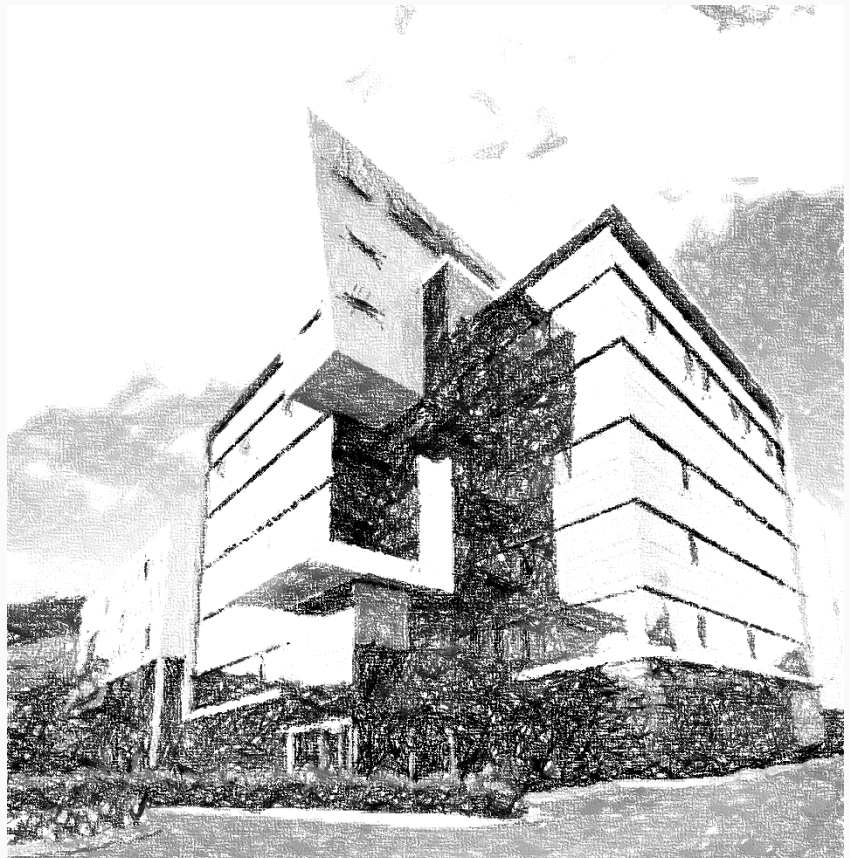


상조활동

1. 최원재 교수 (음악·예술대학) 빙부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2. 김정례 교수 (의과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3. 진병두 교수 (공과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4. 박희철 교수 (과학기술대학) 빙모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5. 차소용 교수 (음악·예술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6. 서문석 교수 (경영경제대학) 빙모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7. 김애경 교수 (간호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8. 전수인 교수 (교육대학원)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9. 김홍자 교수 (의과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10. 최승훈 교수 (대학원)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11. 김수복 총장 빙부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12. 남현도 교수 (공과대학) 빙모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13. 이원준 교수 (공과대학) 본인 결혼 축하 화환 및 축의금 전달
14. 윤상오 교수 (공공보건과학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15. 최창환 교수 (경영경제대학) 빙부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16. 김종수 교수 (치과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17. 송인국 교수 (경영경제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18. 심재우 교수 (공과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19. 윤경환 교수 (공과대학) 빙모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20. 김종수 교수 (의과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21. 오상훈 교수 (공과대학) 본인 결혼 축하 화환 및 축의금 전달
22. 김용환 교수 (생명공학대학) 빙모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23. 서필원 교수 (의과대학) 본인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24. 김보한 교수 (자유교양대학) 본인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25. 방성일 교수 (공과대학) 빙부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26. 심용걸 교수 (공과대학) 빙부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27. 안도현 교수 (예술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28. 현준원 교수 (과학기술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29. 김언조 교수 (교육대학원) 빙모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30. 김태형 교수 (대학원)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31. 이상현 교수 (공과대학) 빙모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32. 송지현 교수 (공과대학) 본인 결혼 축하 화환 및 축의금 전달
33. 황철호 교수 (생명공학대학) 모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34. 박성찬 교수 (과학기술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35. 정필상 교수 (의과대학) 빙모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36. 지금난 교수 (의과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37. 윤영덕 교수 (예술대학) 부친상 근조기 설치 및 부의금 전달

신임교원 축전 및 선물 전달

1. 손지민 교수 (문과대학 철학과)
2. 신동윤 교수 (법과대학 법학과)
3. 정창원 교수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학부)
4. 최나연 교수 (사회과학대학 상담학과)
5. 나진성 교수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6. 윤희철 교수 (공과대학 전자전기 공학부)
7. 정선엽 교수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8. 김태윤 교수 (모바일시스템공학과)
9. 김원호 교수 (사범대 특수교육과)
10. 백용훈 교수 (외국어대학 아시아중동학)
11. 백성호 교수 (과학기술대학 에너지공학과)
12. 황희숙 교수 (생명공학대학 제약공학과)
13. 변재희 교수 (예술대학 미술학부)
14. 이진욱 교수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15. 김정례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16. 손혜주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17. 김용오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18. 장석빈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19. 이한상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20. 김지혜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21. 정재우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22. 이수연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23. 임남규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24. 김도현 교수 (의과대학 의학과)
25. 이재영 교수 (공공·과학 보건대학 치위생학과)
26. 유혜진 교수 (간호대학 간호학과)
27. 한미란 교수 (치과대학 치의학과)
28. 손덕주 교수 (사범대 과학교육과)
29. 오만환 교수 (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교수회 임원 및 운영 위원

교수회 임원

회장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조한승	☎ 죽전 3318	✉ hanscho@dankook.ac.kr	사회과학관 408
부회장	법과대학 법학과 박영준	☎ 죽전 3279	✉ yjpark@dankook.ac.kr	법학관 538
	예술대학 미술학부 정치영	☎ 천안 3721	✉ chired@dankook.ac.kr	예술관 112
사무국장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이기광	☎ 죽전 3421	✉ kiklee@dankook.ac.kr	상경관520
지회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임은주	☎ 죽전 3217	✉ elim@dankook.ac.kr	ICT관 124
사무국장	자유교양대학 박성만	☎ 천안 1398	✉ seongmanpark@dankook.ac.kr	사회과학관 141
감사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강동승	☎ 죽전 3830	✉ dskang@dankook.ac.kr	사범관 607
	과학기술대학 물리학과 김정윤	☎ 천안 3423	✉ jeongyunkim@dankook.ac.kr	자연과학2관 809
여교협회장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박명선	☎ 죽전 3108	✉ mmspark@dankook.ac.kr	법학관 513

교수회 운영위원

죽전캠퍼스 운영위원 (24명)

문과대학	영미인문학과 위혜경 국어국문학과 권진옥
음악·예술대학	도예과 김병울 음악학부 김난희 음악학부 이수진
SW융합대학	소프트웨어학과 이상범 컴퓨터공학과 박경신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남재걸 커뮤니케이션학부 전종우
법과대학	법학과 정해상 법학과 박영준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이기광 경영학부 박재춘 경영학부 문보영 무역학과 이지수
공과대학	건축학부 홍경구 건축학부 이경구 전자전기공학부 장우영
일반/특수/전문 대학원	교육학과 이영희 (1학기) 특수교육대학원 정연수 (2학기) 교육학과 박명선 행정법무대학원 이환수
자유교양대학	유혜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최형준 과학교육과 임은주

천안캠퍼스 운영위원 (24명)

외국어대학	몽골학과 류병재 아시아중동학부 송상현
보건복지대학	심리치료학과 김민선 공공정책학과 성시경 공공정책학과 임동완
과학기술대학	수학과 심상길 물리학과 경지수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과 이형재 생명자원학부 김현범
예술대학	미술학부 정치영 미술학부 조희경
스포츠과학대학	스포츠경영학과 이병관
간호대학	간호학과 김미옥
약학대학	약학과 강명주
자유교양대학	조상우 박성만
의과대학	의학과 조경진 의학과 강윤단 의학과 민준원
치과대학	치의학과 조자원 치의학과 신수연 치의학과 김종빈
대학원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이은정 나노바이오의과학과 오세형

2021학년 교수회 사무국 연락처



죽전 캠퍼스 교수회 사무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 031-8005-2894 엄희재 조교

천안 캠퍼스 교수회 사무실: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인문과학관 244호 ☎ 041-550-1553 김현지 조교

✉ prof@dankook.ac.kr 🌐 <https://cms.dankook.ac.kr/web/professor>



이지수 교수
경영경제대학 무역학과

편집후기 및 기고 방법 안내

<교수회 브리프>는 교수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고자 합니다. 교수회와 대학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교수회 브리프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수회 브리프>는 보다 다채로운 코너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저술하신 신간, 최근 여행하신 곳에 대한 감상, 맛집 소개와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교정 사진이나 교수회 소모임 활동 사진도 좋습니다. 교수님들의 참여로 <교수회 브리프>가 더 풍부하고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교수회 사무국 이메일 (prof@dankook.ac.kr)로 사연과 사진을 보내주세요.

<교수회 브리프> 제17권 2호는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더 흥미있고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도록 준비해보고자 합니다. 교수님들의 많은 기대와 관심,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교수회 슬로건 '섬김, 소통, 참여'를 손 형태로 상징화함. 교수회브리프 17권 1호 발행일 2021년 9월 1일
발행인-조한승, 인쇄-이기광, 편집-이지수, 제호·로고 디자인-정훈동, 행정-김가람·김현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상경관 532호 Tel 031-8005-2894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